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여성정책이슈나 다양한 여성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새롭게 개편된 <KWDI Brief>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MeToo 운동 기획시리즈 1]

일반국민이 바라본 #MeToo 운동

“일반국민 10명 중 8명은 **미투운동 지지**,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향상에
긍정적 기여한다 생각”

Summary

- 일반국민 10명 중 8명은 최근의 미투운동을 '지지한다'고 응답함
- 미투운동이 시작된 시점과 이전을 비교했을 때, 일반국민 10명 중 7명은 성희롱 및 성폭력,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응답함
- '미투운동이 권력이 높은 자가 권력이 낮은 자를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이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일반국민 10명 중 8명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미투운동이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고, 이는 여성 중 83.8%, 남성 중 75.2%에 해당함. '미투운동으로 남성들의 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일반국민 10명 중 7명이 '남성들의 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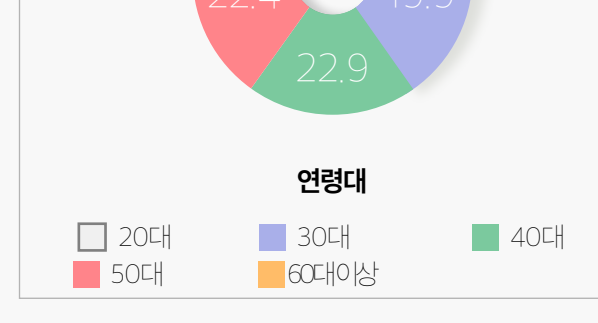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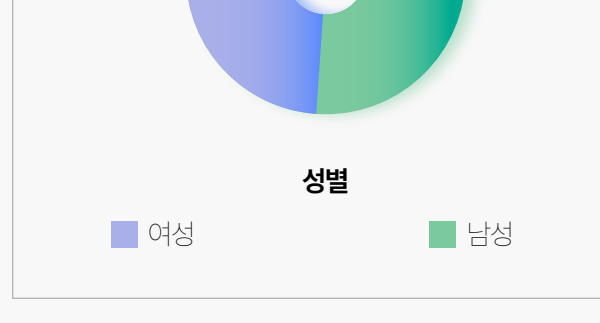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원 35주년을 맞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성평등 정책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조사개요]

기간 : 2018.4.10. ~ 4.11.

대상 : 전국 만 19세~69세 1,013명

방법 : 유무선 RDD를 혼합한 전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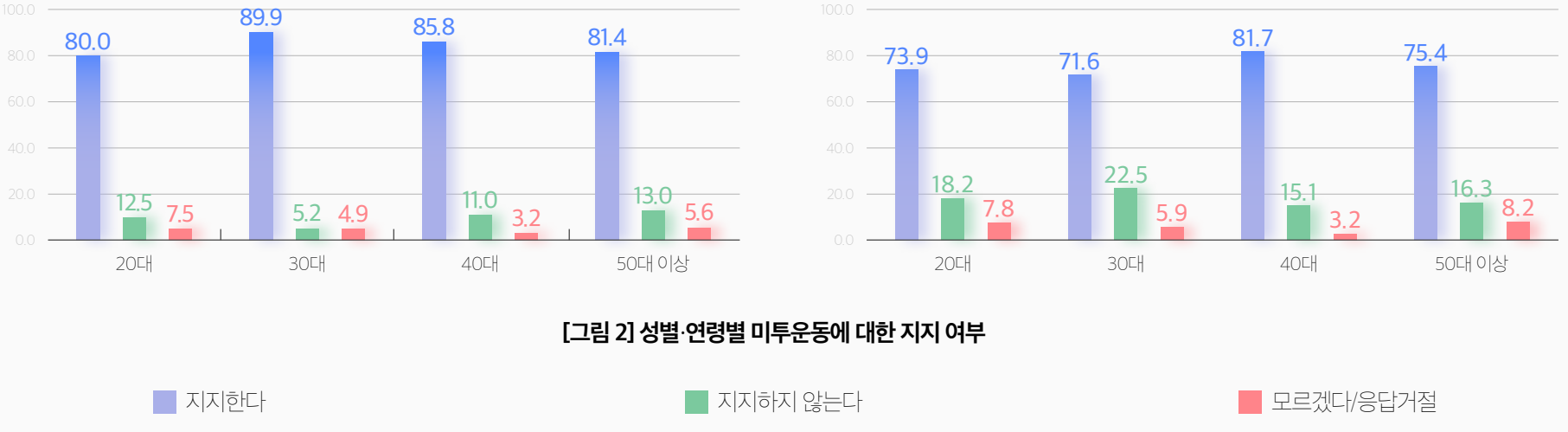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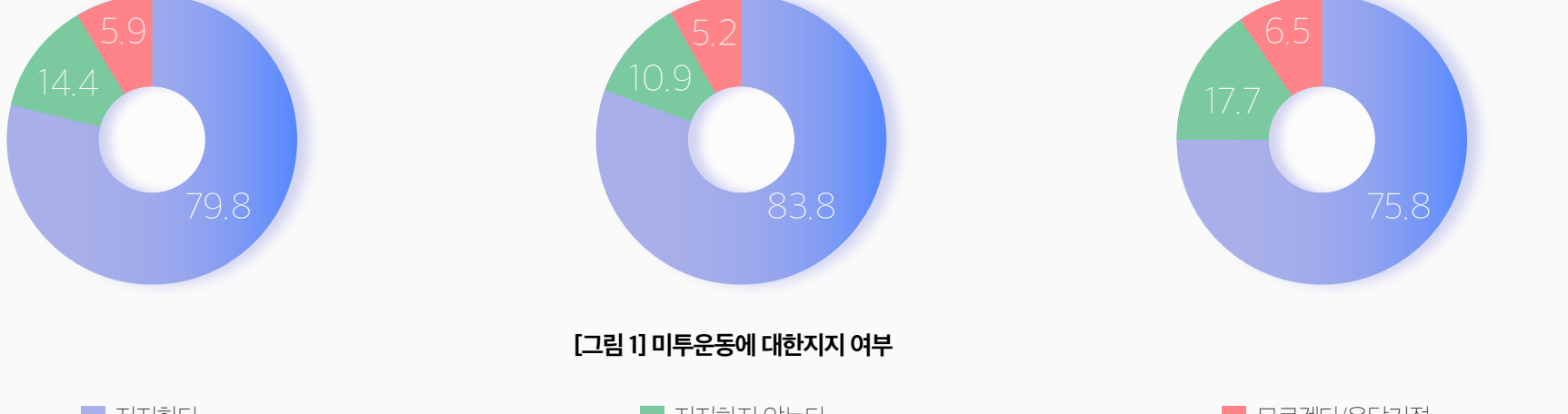


1. 미투운동에 대한 인식

①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 여부

-최근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중 79.8%가 '지지한다', 14.4%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여성 중에서는 83.8%가 '지지한다'고 응답하였고, 남성 중에서는 75.8%가 '지지한다'고 응답함

-남성의 경우 연령별로 보면 20대 73.9%, 30대 71.6%, 40대 81.7%, 50대 이상 75.4%였고, 여성의 경우 20대 80.0%, 30대 89.9%, 40대 85.8%, 50대 이상 81.4%였음. 각 연령대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지지율이 높았고, 남성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30대에서 지지율이 낮았고, 여성에서는 30~40대에서 지지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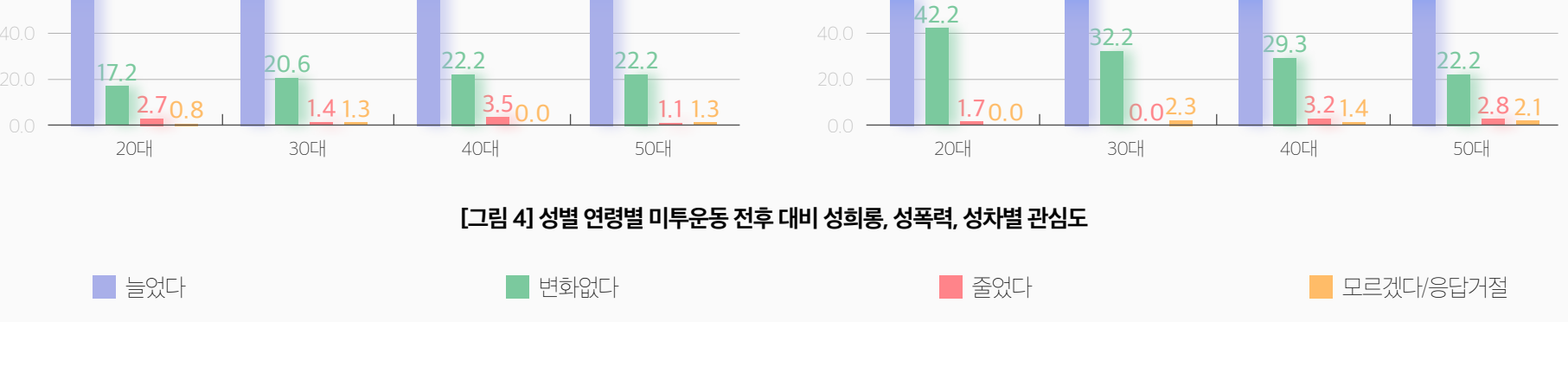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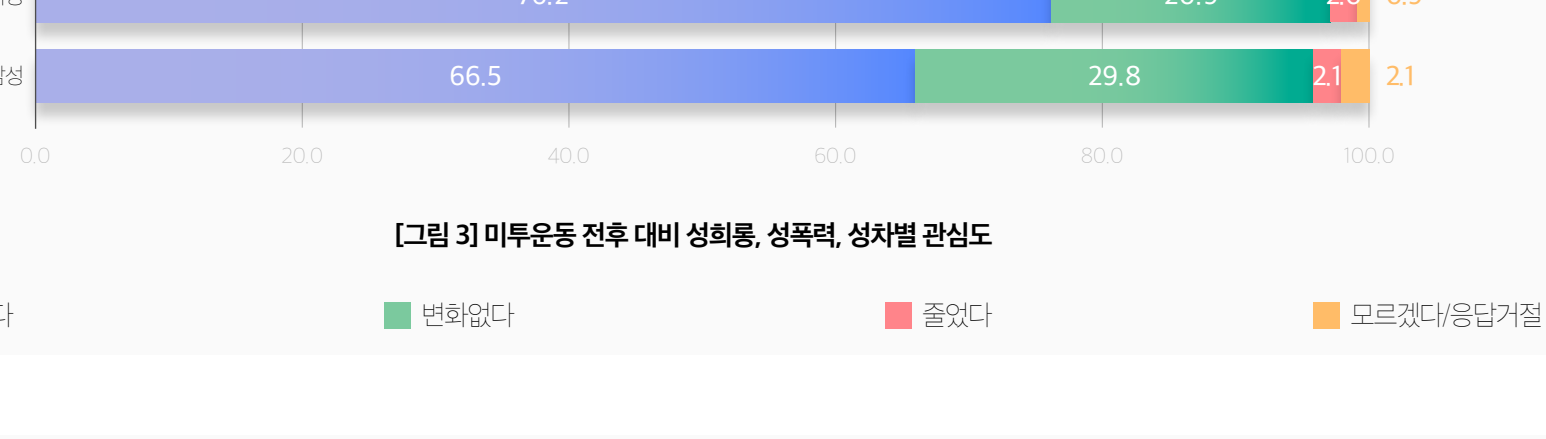


② 미투운동 이후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도

-미투운동이 시작된 시점과 이전을 비교해서, 성희롱 및 성폭력,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체 중 71.3%가 관심도가 '늘었다'고 응답함. '변화없다'는 응답은 25.5%이고, '줄었다'는 응답은 2.0%임

-남성은 66.5%가 '늘었다'고 응답하였고, 29.8%가 '변화없다', 2.1%가 '줄었다'고 응답함. 여성은 76.2%가 '늘었다'고 응답했고, 20.9%가 '변화없다', 2.0%가 '줄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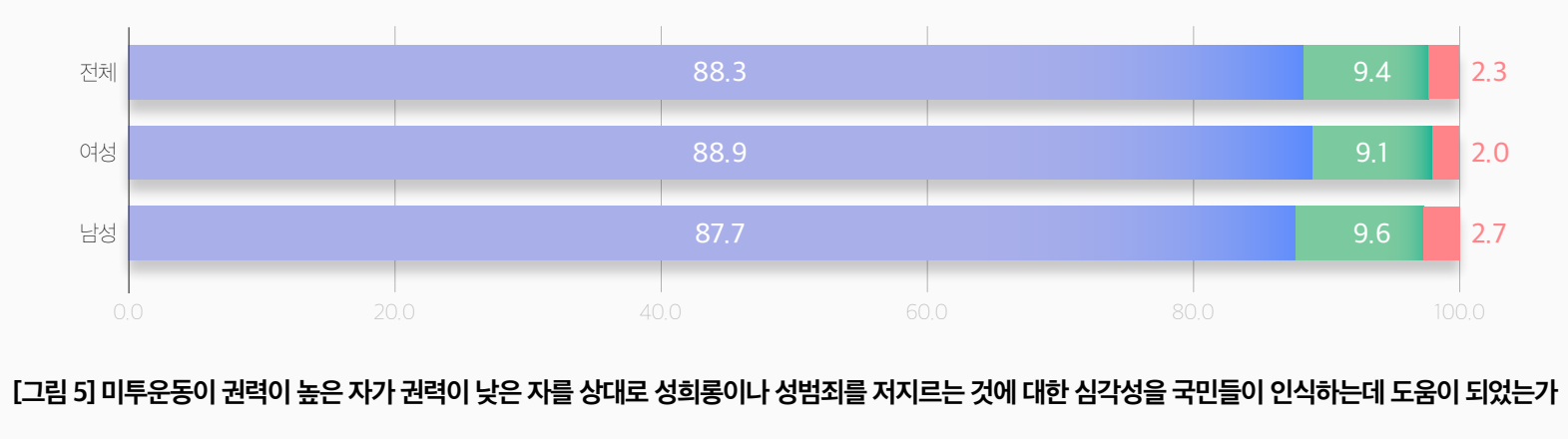
• '늘었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20대 56.1%, 30대 65.5%, 40대 66.1%, 50대 이상 72.9%였고, 여성의 경우 20대 79.3%, 30대 76.7%, 40대 74.4%, 50대 이상 75.5%였음. 각 연령대 모두 남성보다 여성에서 관심이 '늘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심도가 늘었다는 응답율이 높았고,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70%를 상회하는 고른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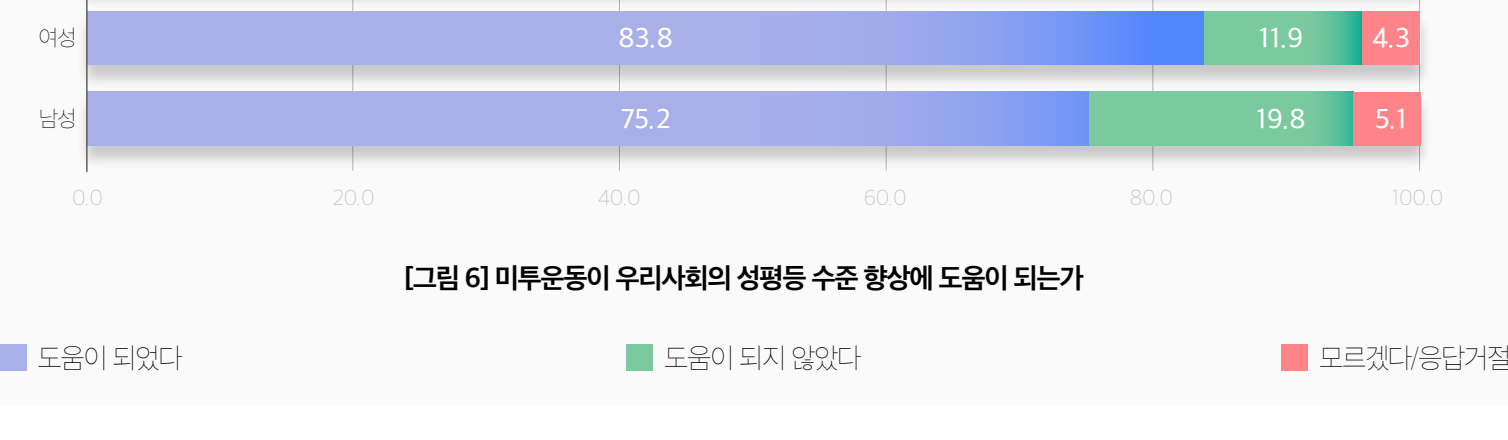
2. 미투운동에 대한 평가

-'미투운동이 권력이 높은 자가 권력이 낮은 자를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이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전체 중 88.3%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9.4%는 '도움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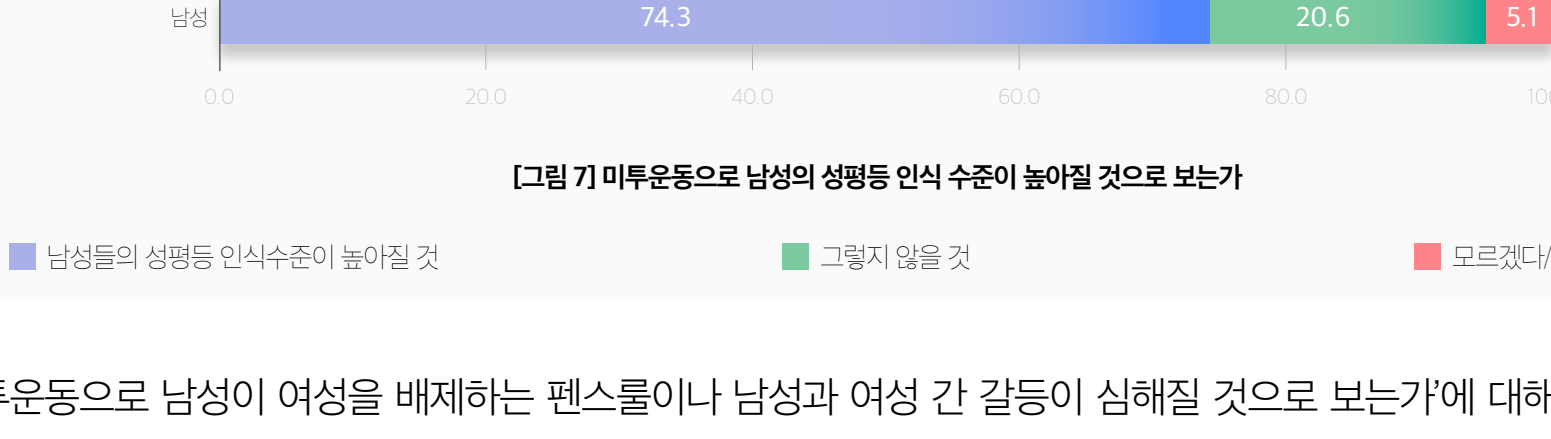
여성 중에선 88.9%, 남성 중에선 87.7%가 '도움되었다'고 응답함. 여성과 남성 모두 10명 중 8명은 미투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희롱·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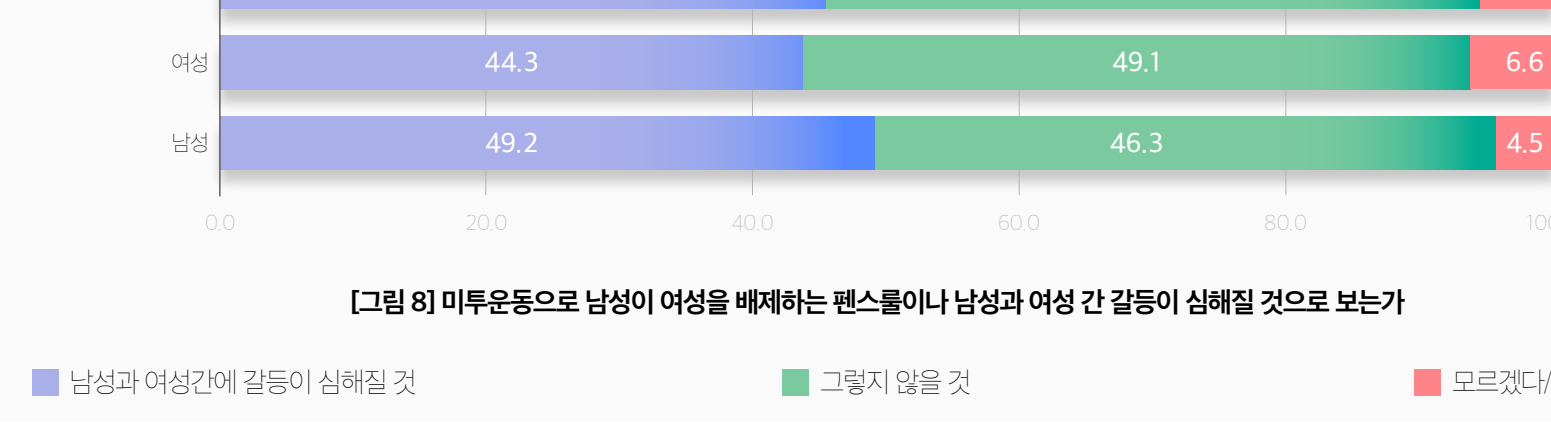
-'미투운동이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전체 중 79.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15.9%가 '도움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여성 중에서 83.8%, 남성 중에서 75.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여성은 10명 중 8명, 남성은 10명 중 7명이 미투운동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인식함



-'미투운동으로 남성들의 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전체 중 70.7%가 '인식수준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24.1%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함. 남성 중에서는 74.3%, 여성 중에서는 67.0%가 '인식수준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함.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남성들의 성평등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계기로 미투운동을 평가하고 있음



-'미투운동으로 남성이 여성을 배제하는 펜스틀이나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전체 중 46.8%가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47.7%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응답함. 남성 중 49.2%, 여성 중 44.3%가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고 응답함. 이처럼 여성과 남성 모두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미투운동으로 인한 남녀 간 갈등 심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대응과 노력이 필요함



-앞서 살펴본 4개 문항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미투운동의 긍정적 영향(권력형 성희롱/성범죄 인식, 성평등 수준 향상, 남성의 성평등 인식 수준 제고 등)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부정적 영향(여성과 남성 간 갈등 심화)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앞서 살펴본 4개의 문항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미투운동에 대해 '권력형 성희롱·성범죄에 대한 인식에 도움이 되었다', '성평등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남성들의 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은 경우에 비해 미투운동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 간에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율이 낮았음

